

새해 달라지는 복지 정책

# 기초수급자 선정 월 소득인정액 118만→127만원

(4인가구 기준)

- 국기양장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간암 검진주기와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기준 조정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지속 적용 확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15종 백신 지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인상,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약 127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

**중증질환 진단용 검사 보험 확대**  
**희귀병자 부담 20~60→10%로**  
**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도**

내년부터는 암·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검사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적용시 본인부담 진료비가 줄어들게 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폭이 늘어나 더 많은 이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복지 제도 22개 중 일부를 소개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내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 비율도 기존 20~60%에서 10% 정도로 줄어든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내년부터는 중위소득 및 생계



내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아가 예방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광주시 북구 제공>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올해보다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까지는 소득인정액이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27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 최저보장수준도 올해보다 약 9만원 늘어난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도 기존 만 12세에서 만 12세와 만 13세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상향=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내년부터는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으로 상향 된다. 올해 대비 약 7.5%(기존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 늘

어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액이 월 최대 28만5230원(잠정)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지난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내년부터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

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파렴균, A형간염, 자궁경부암 등 15종류다.

또 간암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 들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지난 23일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과 함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누구나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 연금코너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화(1355)도 가능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만원으로 소연이에게 따뜻한 겨울을

전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 후원자 모집

# 보성에 사는 김소연(가명·9)은 50년이 넘는 흠집에 살고 있다. 집 안에는 욕실이 따로 없는 탓에 마당에 설치된 수도기를 이용한다. 가림막도 없는 수도기는 당연히 샤워가 불가능하다. 두 칸짜리 방과 야외에 있는 부엌과 재래식 화장실이 소연이네 5식구의 생활 터전이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오빠(15)와 언니(13)가 돌아오는 주말이면 그나마 집에는 발 디딜 틈도 없다. 여기에 나무판자를 얹은 재래식 화장실은 혹여나 발이라도 헛디딜까 늘 걱정스럽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소연이를 도울 '만원으로 집짓기' 후원자를 모집한다.

'만원으로 집짓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무안과 장흥, 나주 등 아동 3명의 주거환경을 개선이 이뤄

졌다. 또 광주일보를 통해 꾸준히 후원자 모집에 나섰던 보성 영광이내도 최근 새로운 집으로 입주했다.

하지만, 앞서 소연이 사례처럼 후원자를 모집하지 못한 채 겨울을 보내야 할 아동들이 남아 있다.

소연이의 아버지(52)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나마 허리디스크가 심해 일을 나갈 수 없다. 또 소연이 엄마(35)는 오른팔에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마저 어렵고, 언니는 지적 장애가 있는데도 병원비 때문에 치료는커녕 장애인단체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소연이를 비롯한 전남지역 3명의 아동을 도울 7000명의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후원문의는 전화 061-921-4397, 소연이네 후원계좌는 농협 301-0081-6148-11, 예금주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소연이네 다섯 식구가 살고 있는 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 광주 북구, 봉사활동으로 새해 업무 시작

광주시 북구(정장 송광운)가 2016년 새해를 봉사활동으로 시작한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내년 별도의 시무식 행사를 갖지 않고 전 직원들이 관내 노인복지관 등 35개 복지시설에서 배식 도우미 등 자원봉사 활동으로 새해 첫날 업무를 개시한다.

송 청장은 내년 1월4일 북구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 자원봉사를 하고,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각화중합사회복지관과 오치중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6개 복지시설에서 중식 준비 및 배식,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북구 산하 부서·진목·동호

회별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북구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에서도 관내 28개 복지시설을 찾는다.

북구 관계자는 "공무원 중심의 중무식과 시무식보다는 주민 중심의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더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2년부터 중무식 대신 부서별 송년 간담회를 해왔고 2013년부터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및 직원들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시무식을 대신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전남 4개 기관,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평가 최우수

조선훈 노인센터·여수 동백원 등

여수 동백원 등 광주·전남지역 복지시설 4곳이 장애인 활동지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역자활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226개 기관에 대한 '2015년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실시해 21곳을 장애인 활동지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에서는 광주 조선훈 노인복지센터와 광주 쌍촌장애인활동보조지원센터, 여수 동백원, 목포 명도사회복지센터 등 4곳이 최우수기관에 포함됐으며, 이들 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 전국 226개 기관 중 80개소가 우수,

양호 68개소, 보통 45개소, 미흡 33개소로 나타났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 기관 소속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자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지

역자활센터, 장애인단체 등 약 750곳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으로 운영 중이다.

평가 항목은 기관 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시설 환경,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과정 및 절차, 서비스 제공결과 등 항목의 총 51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연금공단은 내년 1월 시상식을 하고 최우수기관에 대해 표창장과 인증마크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 시군구 및 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펜션·문화복합시설 최적!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

2016년도

#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시작 하십시오!**

대표 : 최선규

H.010-3605-5000